

장흥 '생명의 탐진강' 만들기 총력

제방·보 정비·자전거도로 등 2022년 준공 연산마을 급커브 구간 확장 공사 95% 진행

장흥군은 지난해 '생명의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업무협약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 6월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생명의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탐진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후 장흥군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을, 장흥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7년 11월부

터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해 제방보수 1.96km, 자전거도로 7.63km, 보개량 2개소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연초부터 교통사고가 잦아 교통안전이 심각한 연산마을 급커브구간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공사가 95% 이상 완료돼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장흥을 장흥교부터 강진을

남포리까지는 장흥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총사업비 323억원을 투입해 제방보수 2.4km, 자전거도로 10.9km, 보 4개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군도 2020년 한 해 아름다운 탐진강을 가꾸기 위해 국비 4억2,000만원과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정남진산업고에서 옛 부산교간 제방도로 유지보수, 탐진강 다목적광장 포장, 정하아파트 앞 진입도로 확장 및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다.

군은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를 통해 지역민의 휴식 공간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탐진강 아이템 용역 결과

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용역과 연계해 감성, 디자인, 체험, 치유, 소통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장흥군 장흥군은 "장흥군과 강진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탐진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산마을 급커브구간 정비사업은 업무협약의 최초 성과물로 나타났다"며 "30년이 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모두가 힘을 쏟고, 그 혜택이 장흥군민에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장흥군의 보물인 탐진강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

지역 고유 문화·역사 자원 활용 프로그램 접목 호평

담양군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매년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전국 지자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올해는 각 시도 추천한 우수사례 46개 사업 중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담빛길 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생사업이다.

죽녹원과 원도심을 연계하기 위해 담빛길을 4구간으로 나눠 담빛길 공방거리, 라디오스타 스튜디오, 구관사 인문학가옥, 해동주조장 일원 해동문화예술촌 등 다양한 문화복합 거점공간을 만들고 군민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뤄졌다.

평가위원들은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해 담양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어울리는 창작공간에 독특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점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담양군 최형식 군수는 기관 표창을, 담양군청 문화예술담당 김성아, 전 담양문화재단 정병연 본부장은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으며 예산지원 인센티브, 우수 사례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담양군 고인성 문화체육과장은 "1960년대 담양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성을 반영해 문화복합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주민의 삶 속에서 예술을 지향하는 문화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전남농기원 개발 상추 신품종 '흑하랑' 함평서 기능성 식품 개발 원료로 납품

함평군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상추 신품종 '흑하랑'을 기능성 식품개발 원료로 납품한다.

아직 시범재배단계다 소량이지만 서울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의 협의 끝에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동결건조한 흑하랑 500kg을 우선 납품하기로 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숙면 유도 성분이 다량 함유된 토종상추 '흑하랑' 품종 개발에 성공했다.

신품종 흑하랑은 숙면 유도와 긴장 완화에 탁월한 락투신, 락투세린 등의 성분이 일반 상추보다 12배가량 많이 함유됐다.

재배기간도 45~70일 정도밖에 안 돼 연간 4회 수확이 가능하다. 특히 우월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잠재소로는 물론 식·의약 신제품 소재로도 가능성이 높아 충만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흑하랑은 함평을 비롯해 무안, 화순 등지에서 1.2ha규모로 시범 재배되고 있다. 함평군은 흑하랑이 천연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만큼 품종 확보와 생산 면적 확대, 가공 상품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함평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흑하랑을 동결건조하기 위해 세척하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 20일 출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이 공식 출시된다.

함평군은 16일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을 오는 20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구매자가 판매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충전·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가맹점도 해당 앱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정산 시에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산계좌에 입금돼 수수료

부담과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말까지 1억원 규모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10% 특별할인 혜택도 종이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모바일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종이 상품권과 합해 월 100만 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해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를 등록한 후 상품권을 결제하면 된다.

/함평=윤예중 기자

나주시노인회장에 서정윤 현 회장 재선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는 제16대 지회장 선거에서 제15대 지회장을 역임한 서정윤 현 회장이 재선됐다고 최근 밝혔다.

나주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당초 10월 28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 회장의 후보자 단독 등록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의원 임시총회 대신 서면인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정윤 현 회장은 총 613명 중 453명(74%)의 인준을 받아 지난 11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나주=이재순 기자

서정윤 현 회장은 출마 소견서를 통해 ▲노인회 발전과 복지예산 확보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가입 승인에 따른 중장기비전 실행 ▲노인일자리 확충과 전통 체육경기 계승 발전 등을 공약했다.

서정윤 당선인은 "다시 한번 노인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노인회가 지역발전과 행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2,105세대에 21억여원

영광군은 지난해 여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제9·10호 태풍으로 총 2,439ha의 논·밭 경작지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전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더불어 특히 농업·임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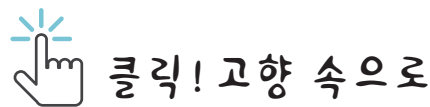
이번 재난지원금은 제9·10호 태풍 때

피해를 입은 주민 2,105세대에 대해 총 21억5,500만원을 지급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여름 연이은 태풍으로 특히 농가 피해가 컸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4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함평군새마을회·여성단체협 마스크 기부

함평군새마을회가 최근 함평군청을 찾아 노약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전해달라며 마스크 1만장을 기부했다.

함평군새마을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취약계층을 위해 '밀반찬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천정화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여성단체협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마스크 1만장을 쾌척했다. 함평군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비롯해 '여성지도자교육', '소외계층 감장나누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단체다.

군은 이번 기부받은 마스크 2만장을 읍·면과 군청 각 부서에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배지할 계획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장흥 회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장흥군 회진장학회가 최근 회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0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진장학회는 조선대 등 6개 대학에 재학중인 8명의 대학생에게 장학증서와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진장학회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돼 '면민 1인 1계좌 갖기' 운동 등을 통해 지역민과 향우들

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5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한 황월연 회진장학회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이번 장학금이 회진면 인재 양성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 최우수상

화순군이 최근 전남도가 주최한 '2020년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가 주관해 최근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경연대회에는 전남도 22개 시·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연대회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의 자체 훈련을 통해 지상 진화를 위한 장비 사용 숙련도,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운용 능력, 팀워크 훈련 역량, 시·군 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열렸다.

화순군은 지난 2013년 산림청 주최 전국 지상 진화 경연대회, 2016년과 2019년 전남도 주최 지상 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화순=서호영 기자